



과총, 지역연합회 구성 통해 변화 모색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 창립총회가 7월 22일 광주·전남지역의 과학기술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정석중 전남대학교 광주·전남지역연합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김시중 과총회장의 격려사와 김웅배 목포대 총장, 양형일 조선대 총장, 정완호 한국교원대 총장 등 지역인사의 축사, 그리고 나정웅 광주과학기술원장의 ‘땅속을 보려는 실험과 이론’이라는 주제의 초청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시중 과총 회장은 “과학기술인들이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뭉쳐 21세기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과총도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여 제2의 과학기술입국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역 연합회의 창립은 과총이 과학기술 관련학회 및 연구기관 등 단체 중심의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어 과총의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난 3월부터 시도·지역별 연합회를 출범시켜 새

로운 발전을 모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창립된 시도·지역연합회는 대구·경북지역연합회(회장 조현기), 충남지역연합회(회장 이상만), 대전지역연합회(회장 김성년), 충북지역연합회(회장 김성철), 경남지역연합회(회장 한영성), 광주·전남지역연합회 등 6개 단체이다. 과총은 앞으로 강원지역, 제주지역 등 나머지 지역연합회 창립을 9월 중에 모두 마치게 되면 전국적인 규모의 개인협력회원을 갖는 조직이 되어, 과학기술의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명실상부한 과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 연합회가 활성화되면 과총의 발전은 물론, 앞으로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시중 과총 회장은 2002년 2월에 취임한 이래, 과총의 변화를 위해 과총의 운영을 위원회 중심으로 바꾸고, 과학기술 미디어사업단을 발족시켜 월간 「과학과 기술」지를 확대 개편, 유가지화하여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체제로 바꾸었다. 또한 과학기술자문단과 과학기술정보사업단 등 과총의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꾸며 예

산과 조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대폭 지원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김정덕)에서는 이공계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연수지원사업 예산이 20억원에 불과해 상반기 156명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나 80억원의 추경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이달 중 800여 명을 추가로 선발해 다음달부터 연구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은 이공계 출신 미취업 석·박사 인력을 발굴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국·공립연구소,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지난 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계속사업으로 1년에 상·하반기 2번에 걸쳐 모집하며, 선정된 연구원은 1년 동안 매달 석사 120만 원, 박사 150만 원의

연구수당을 받게 된다.

문의 : 한국과학재단 인력지원팀 042-869-6414 www.kosf.re.kr

연구원 정년 후 연장계약제 도입

과학기술부(장관 박호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능력이 우수한 연구원에 대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년 후 연장계약제(초빙연구위원제도(가칭))'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9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동 제도의 시행을 권고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초빙연구위원(가칭)은 정년퇴직 및 퇴직금 정산으로 고용관계를 정산한 이후 계약직(비정규직)의 형태로 재채용되며, 출연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을 제외한 모든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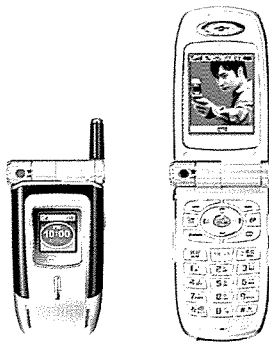
그 밖에 초빙연구위원의 자격요건, 비율, 보수수준, 계약기간 등은 각 출연연구기관별로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토록 하였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능력이 뛰어난 퇴직연구원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써 국가적으로는 소중한 지식자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한편, 출연(연) 경영혁신과정에서 정년단축(종전 65세에서 61세로 단축)으로 노후에 대해 불안감이 팽배해진 연구원들의 연구동기 부여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과학기술부 종합조성과 (02) 503-7660

LG전자, 국내 최대 1시간 캠코더폰 출시 - 올 하반기 다양한 휴대전화 대거 출시예정



LG전자가 국내 최대의 1시간 동영상 연속녹화와 재생은 물론, 듀얼스피커의 3차원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하는 VOD 다운로드 및 실시간 스트리밍기능이 내장된 동영상 IMT-2000 휴대폰 2종(모델명 :

LG-SV130, LG-KV1300)을 선보이며 고가 카메라폰시장으로 대변되는 VOD 캠코더폰을 출시했다. 동영상녹화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한 이 제품은 고객들의 캠코더폰 사용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 4배줌 촬영', '5단계 밝기 설정', '흑백전환', '화면반전' 및 '무음촬영' 등 기존 디지털 캠코더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특수촬영 기능을 부가해 기존 캠코더폰 사용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30만 화소(VGA급) 내장형으로 사진을 최대 9장까지 한번에 촬영할 수 있는 '연속촬영 기능', '스티커 촬영기능' 및 '셀프타이머 기능' 등 디지털카메라로서의 다양한 첨단기능을 수용했다. 또한 3·4 분기내 스윙블(Swivel, 일명 로터리 스타일) 디자인의 스타일리시 카메라폰을 비롯, 초슬림 및 PDA스타일 등 5~6종의 첨단 카메라폰을 대거 선보여 하반기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제품가격은 50만원대 이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다양한 첨단기능이 첨가된 휴대전화를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정리 _ 이재성 jslee@kofst.or.kr

9월 학회 학술행사 일정

한국농촌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학회	9.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형강의동
한국측량학회	해의공동학술대회	9.15~19(예정)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제주대학교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진동 센서 및 신호처리기술 강습회	9.18~19	서울대학교 호암관
한국암반공학회	기술분과세미나	9.2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조선학회	제8차 수치 선박유체역학 국제회의	9.21~25	부산그랜드호텔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MIGRATION '03국제학술회의	9.21~26	경주힐튼호텔
한국유휴학회	유휴지 심포지엄	9.25~26	부산컨벤션센터
한국농업교육학회	아시아·태평양 지역농업 및 환경교육 국제학술회의	9.25~27	농촌진흥청 국제협력관
한국퍼지 및 지능시스템 학회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추계학술대회 4th ISIS(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computation and intelligent system)	9.25~27	제주대학교
한국공작기계학회	국제자동화부품전	9.26~27	대구컨벤션센터
한국표면공학학회	국제학술회의(AEPSE-4)	9.28~10.2	제주라마다호텔